

“전북 여성 미래 선도할 것”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올 한해 성과 공유 · 2023년 역점사업 방향 설명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2년 성과 공유 및 2023년 역점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확대 △제11회 젠더문화축제 △제50회 전북여성백일장 및 기념식 △블로그 기자단이 간다 △제3회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창업캠프를 통해 지역사회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연계적 사업을 운영하고, 나아가 여성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어 내년 역점 사업으로는 △여성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활성화 △한국 여성의 정 호남정치학교 △가족친화사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일·생활균형문화 확산 사업 △직원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3년 1월 13일 전북여성신년하례회를 통해 희망찬 새해 전북여성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매월 첫 번째 화요일 분야별 여성 리더들의 간담회를 추진해 도내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네트워크 구성점 역할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사업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맞춰 다양한 부모 역할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양육자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현장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여성의 지속 근로를 위한 일·생활 균형문화 개선 컨설팅도 추진한다.

이어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될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은 지역 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해소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기업에는 정부지원제도를 설명하고 공인 노무사와 경영지도사 등을 매칭시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기회를 통해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ESG경영)을 위한 센터 내 복지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해 10년, 20년, 30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함이다.

전정희 센터장은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기에 내년 사업 계획에 내실화를 더욱 기했다”며, “다가오는 2023년에도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에 사회적 책임과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북 여성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관영 도지사가 21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찾아 “문화수도 전북을 일궈 내기 위해서는 재단이 전북도민과 예술인들의 문화와 관광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 플랫폼 역할 수행해야”

김관영 도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방문

김관영 도지사가 21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찾아 “문화수도 전북을 일궈 내기 위해서는 재단이 전북도민과 예술인들의 문화와 관광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도민들의 문화 향유가 힘들었고, 예술인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며 “문화예술·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전북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운 대표이사는 업무보고에서 전북

도정의 슬로건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에 맞는 재단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재단의 주요 업무 및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재단은 도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혁신 실행과제로 △예술인 복지사업 강화 △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 보완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상 전북형 웰니스&워케이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3년 전라북도의 메가이벤트인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연계해 전북 문화관광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사랑의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동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사랑의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일 직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부했다.

이 성금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재단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며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초등음악수업연구회, 전주교대서 나눔 음악회 개최

전북초등음악수업연구회 ‘전율’(회장 이해영)이 지난 20일 전주교대 음악관 3층 연주홀에서 ‘You&I Together’ 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연은 지역과 연계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완산골 지역 아동센터와 흑석 나눔 지역 아동센터의 후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추진됐다.

연말에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롤 매들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A Whole New World’와 같은 영화음악, 판소리 ‘쑥대머리’와 성악 ‘Nella Fantasia’ 등 친숙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램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 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성료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2 전라북도 관광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2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의 잠재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가치를 향상시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 19~20일 1박2일 간 도내 소재 관광분야 종사자 및 취업 희망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 총 2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대학생 참가자는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은 물론 관광분야 취업 희망자들과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기회가 마련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관광진흥본부 김현 본부장은 “전북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호기로운 호사원’ 팝업스토어 구축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대표 캐릭터인 ‘호기로운 호사원’을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체 개발 캐릭터 ‘호기로운 호사원’을 내외부 곳곳에 배치해 한옥마을을 찾는 MZ 세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호기로운 호사원’은 올해 9월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키고자 MZ 세대 호랑이 캐릭터 콘셉트로 개발됐다.

최근에는 이모티콘 16종을 출시해 카카오톡에서 2만5천 명에게 선착순 배포했으며, 배포 시작 9분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팝업 스토어는 전주공예품전시관 판매관 입구에 마련됐다. 3가지 테마로 나눠진 팝업스토어는 산타로 변신한 호사원과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포토존, 파티

를 즐기는 호사원으로 꾸며진 호사원 파티존, 추운 겨울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호사원 쿼션존으로 꾸며졌다.

한편, 전주공예품전시관은 호사원을 SNS에 공유하는 ‘호사원을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재단 원장은 “그간 호사원에 대한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굿즈 개발에 대한 수요가 이번 팝업스토어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eonjucraft.co.kr) 또는 공예문화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